

금융

Sector Issue Brief

2026. 06. 19

Check Point

- 중앙그룹 신용이벤트 발생
- 일부 은행과 증권사 익스포져 보유
- 담보비율 높아 최종손실 규모 제한적

JTBC 회생신청 영향 미미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내 주요 회사 신용이벤트 발생

- ▶ 최근 JTBC의 유동화증권 원리금 미지급(206억원) 발생 이후, 중앙그룹 내 주요 5개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 중
- ▶ 신청사 자료를 참조하면 6개 회사(회생절차+워크아웃)의 금융권 신용공여 잔액은 약 1.8조원으로 추산됨. 익스포져 가운데 대출 채권과 지급보증은 각각 9,397억원, 686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유가증권 규모도 8,035억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화증권이 포함되고 투자주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출+지급보증을 기준으로 금융권 익스포져를 분석
- ▶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업권별 총 익스포져는 은행이 6,313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사 1,157억원, 캐피탈 637억원 및 기타 보증보험사와 저축은행으로 구성됨

7개 상장 은행지주 총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6,300억원 추산. 증권/보험/캐피탈사 등도 신용공여

- ▶ 상장 은행지주 가운데 7개사가 은행 및 비은행 자회사를 통해 JTBC를 포함한 6개 주요 회사의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6,257억원. 이 중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각각 3,632억원, 1,361억원으로 상당부분을 차지. 타 은행지주의 경우 규모가 평균 250억원으로 크지 않으며 지주 순이익 대비 비중은 미미한 수준
- ▶ 개별은행 기준으로 보면 11개 은행이 총 6,313억원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 중 4,243억원으로 약 70%를 차지. 다른 금융지주 내 은행은 익스포져가 평균 150억원 내외에 그침
- ▶ 증권사의 경우 은행지주 계열 내 자회사 이외에 한양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은 130억원 규모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보험사 중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370억원의 이행보증을 제공
- ▶ 캐피탈사 역시 은행지주 계열사인 하나캐피탈, KB캐피탈, IBK 캐피탈이 평균 200억원 수준의 익스포져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담보비율 높아 최종손실 인식규모 크게 축소. 금융권 영향 미미

- ▶ 회생절차(워크아웃) 신청 전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추후 건전성 재분류와 함께 총당금 적립이 예상됨. 하지만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의 영업부진이 이미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기에 대부분 담보 중심으로 신용공여를 제공
- ▶ 하나금융의 경우 신용공여 금액 중 담보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금융 역시 상당부분 손실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양사의 추가총당금 적립규모는 신용부문을 감안해 300~5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 타 상장 은행지주 및 증권사 역시 절대적인 익스포져 수준이 적고 최종손실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그림1 중앙그룹 최근 사태와 경과

일자	내용
2026.06.12	- JTBC 유동화증권 원리금 206억원 미지급 발생
2026.06.14	- 중앙그룹 계열 4개사(중앙홀딩스·콘텐츠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6.06.15	- JTBC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6.06.15	- 중앙그룹 계열 5개사 포괄적금지명령 공고
2026.06.15	- 중앙일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 발표

자료: 한국신용평가

그림2 중앙 계열사 금융권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대출채권	유가증권	지급보증	합계
중앙홀딩스*	215.0	0.0	1.9	216.9
중앙일보**	177.7	186.4	40.4	404.4
JTBC*	85.6	403.5	5.7	494.8
콘텐츠리중앙*	131.0	99.5	0.0	230.5
메가박스중앙*	137.8	114.1	20.6	272.5
중앙피앤아이*	192.7	0.0	0.0	192.7
합계	939.7	803.5	68.6	1,811.8

자료: 나이스비즈라인, 한국신용평가,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1) *는 회생절차 신청, **는 워크아웃 추진, 2) 대출채권, 지급보증은 나이스비즈라인, 유가증권은 한국신용평가 참고

그림3 금융지주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익스포저 합계	중앙홀딩스	중앙일보	JTBC	콘텐츠리	메가박스	피앤아이
하나금융지주	363.2	140.0	57.0	20.0	130.0	16.3	0.0
우리금융지주	136.1	0.0	42.5	10.0	0.0	3.6	80.0
KB금융	58.7	0.0	21.7	0.0	0.0	17.0	20.0
BNK금융지주	32.0	25.0	0.0	7.0	0.0	0.0	0.0
기업은행	21.0	0.0	17.0	4.0	0.0	0.0	0.0
신한지주	10.0	0.0	0.0	0.0	0.0	10.0	0.0
iM금융	4.7	0.0	0.0	0.0	0.0	0.0	4.7
합계	625.7	165.0	138.1	41.0	130.0	46.9	104.7

자료: 나이스비즈라인,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대출채권+지급보증 기준

그림4 은행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익스포저 합계	중앙홀딩스	중앙일보	JTBC	콘텐츠리	메가박스	피앤아이
하나은행	313.2	140.0	57.0	0.0	100.0	16.3	0.0
우리은행	111.1	0.0	42.5	10.0	0.0	3.6	55.0
SC제일은행	80.0	0.0	0.0	0.0	0.0	0.0	80.0
산업은행	25.5	0.0	8.0	0.0	0.0	17.5	0.0
경남은행	25.0	25.0	0.0	0.0	0.0	0.0	0.0
국민은행	22.0	0.0	5.0	0.0	0.0	17.0	0.0
농협은행	18.5	0.0	18.0	0.0	0.0	0.5	0.0
기업은행	14.0	0.0	10.0	4.0	0.0	0.0	0.0
신한은행	10.0	0.0	0.0	0.0	0.0	10.0	0.0
부산은행	7.0	0.0	0.0	7.0	0.0	0.0	0.0
수출입은행	5.0	0.0	0.0	5.0	0.0	0.0	0.0
합계	631.3	165.0	140.4	26.0	100.0	64.9	135.0

자료: 나이스비즈라인(대출채권+지급보증 기준)

그림5 증권사 등 기타금융권 익스포저 현황

증권사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익스포저 합계	중앙홀딩스	중앙일보	JTBC	콘텐츠리	메가박스	피앤아이
한양증권	63.0	0.0	28.4	34.6	0.0	0.0	0.0
우리투자증권	25.0	0.0	0.0	0.0	0.0	0.0	25.0
NH투자증권	13.0	0.0	5.0	0.0	0.0	0.0	8.0
하나증권	10.0	0.0	0.0	0.0	10.0	0.0	0.0
iM증권	4.7	0.0	0.0	0.0	0.0	0.0	4.7
합계	115.7	0.0	33.4	34.6	10.0	0.0	37.7

보험사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익스포저 합계	중앙홀딩스	중앙일보	JTBC	콘텐츠리	메가박스	피앤아이
서울보증보험	37.0	1.9	9.2	5.7	0.0	20.1	0.0
합계	37.0	1.9	9.2	5.7	0.0	20.1	0.0

캐피탈사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익스포저 합계	중앙홀딩스	중앙일보	JTBC	콘텐츠리	메가박스	피앤아이
하나캐피탈	40.0	0.0	0.0	20.0	20.0	0.0	0.0
KB캐피탈	16.7	0.0	16.7	0.0	0.0	0.0	0.0
IBK캐피탈	7.0	0.0	7.0	0.0	0.0	0.0	0.0
합계	63.7	0.0	23.7	20.0	20.0	0.0	0.0

저축은행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익스포저 합계	중앙홀딩스	중앙일보	JTBC	콘텐츠리	메가박스	피앤아이
제이티앤에저축은행	5.0	0.0	0.0	5.0	0.0	0.0	0.0
모아저축은행	3.3	0.0	3.3	0.0	0.0	0.0	0.0
오케이저축은행	2.8	0.0	2.8	0.0	0.0	0.0	0.0
더블저축은행	2.3	0.0	2.3	0.0	0.0	0.0	0.0
영진저축은행	0.9	0.0	0.9	0.0	0.0	0.0	0.0
합계	14.3	0.0	9.3	5.0	0.0	0.0	0.0

자료: 나이스비즈라인(대출채권+지급보증 기준)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9.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Hold (보유) Sell (매도)	-15% ~ +15% -15% 이하 기대	10.7%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